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외대학보

879 호
2006년 5월 10일 (수요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박철 편집인겸 주간 양민정 편집장 임선현 인쇄인 홍윤주 신문사 2173-2503,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2173-2504 FAX 2173-2505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단체협상 또 결렬, 양측 갈등 깊어져

학교-노조, 노조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해 이견 좁히지 못해
학내 각 구성원 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 밝혀

지난 달 6일(수)부터 시작된 직원 노동조합(노조) 총파업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지난 달 18일(화) 재개된 4차 단체협상(단협)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조정해 나가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학교측이 여전히 노동조합원 48명에 대한 조합원 가입범위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5일(화)에 6차 단협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소병국 학교측 교섭위원은 "48명의 조합원 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협은 잠정 유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학교측은 법원에 노조원 48명에 대한 '조합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법원에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소병국 위원은 "현재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가처분신청을 위한 서류작업 등 신청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정철 노조측 교섭대표위원은 "이것은 단협 초부터 노조측에서 제시했던 것인데 이제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앞으로 '조합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경우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총파업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 대해 이정철 교섭대표위원은 "현재 학교가 말을 바꾸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섭이 원만히 이뤄지는 시기까지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각 구성원이 입장을 표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달 10일 성명서를 통해 "연구를 본령으로 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보조기능을 해야 하는 직원이 이를 망각한 채 노조 전면 파업을 진행해 일으킨 학내의 혼란 및 피해에 우려를 표한다"며, 또한 "학교 당국은 노조의 조속한 파업 철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총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노조에 3차례 항의 방문을 했고, 본관 로비에서 '학습권 지키기' 항의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총학생회의 1차 항의 방문에서 노조 조합원과의 몸싸움과 대자보훼손 등의 일이 벌어져 노조와 학생회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다함께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학내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학생들간에 여론이 갈라지는 모습도 보였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김준식(아시아아프리카·인도어 99)군은 "현재 총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파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세영(정치외교 석사 2학기)군은 "양측 다 잘못이 있지만 노조가 협상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인 학교가 선결조건을 내세워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손보율 기자
open05@hufs.ac.kr

▲ 서울배움터 연수평가원 앞 미네르바 잔디동산이 지난 달 20일 개교기념일에 맞춰 개장되어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7+1 제도 차차 시행 중

박 철 총장의 취임 공약이기도 했던 '7+1 제도'가 점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7+1 제도'는 8학기를 다니는 동안 모든 학생이 적어도 1학기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를 위해 학교측은 우리학교 등록금을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형식의 파견학생제도 혹은 교환학생제도로 학생들에게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는 자매학교의 부족과 노조 파업으로 인한 일 처리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학생들에게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제공된다.

남자 종목에는 축구, 농구, 족구가 있고 여자 종목에는 피구, 발야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별로 경기를 치룬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동아리연합회에서 농구팀이 조직돼 참가하기도 했다. 이번 체전의 종합 우승과 준우승팀에는 각각 컴퓨터와 에어컨이 상품으로 주어지며, 각 단대가 한 팀이 되어 치러지는 단체경기와 각 종목별 1,2,3위 팀에도 다양한 상품 및 상금이 시상될 예정이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김준식(아시아아프리카·인도어 99)군은 "체전을 통해 과별로 단합할 기회를 얻고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사고 없는 체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아울러 학생들이 파업과 관계없이 체전 유고결석계를 쓰는 데에서는 '마지막 학기는 학교에서 지내야 한다'는 학칙에 의거해 3학년 2학기 학생들의 '7+1제도'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외협력처장 권석균 교수는 "더 좋은 학교들과의 자매결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파견학생제도가 대폭 확장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 처장은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소라 기자
seamaria@hufs.ac.kr

용인배움터 체전 열려

용인배움터에서는 체전이 한창이다. 지난 1일(월)부터 학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전은 결승전 및 단체경기와 폐막식이 있는 오는 11일(목)까지 이어진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체전 일정은 날씨와 추후 상황에 따라 오는 16일(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종목별 일정과 변동사항, 경기 시간 변경 요청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대전표 확인 홈페이지 주소
club.cyworld.com/27hufs

홍은미 기자

우리대학, BK21 3개 팀 선정돼

전략적 대응 통한 지속적인 노력 펼쳐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달 26일(수) '2단계 두뇌한국21사업(BK21)'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단계 BK21사업에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고급전문서비스 △지역우수 대학원사업 등 전체 분야에서 전국 92개 대학(386개 대형 사업단과 583개 소형 사업팀)이 신청한 가운데 74개 대학에서 243개 대형 사업단과 325개 소형 사업팀이 선정됐다.

우리대학에서는 인문사회분야(대형사업단)에서 '신 한 · 중 문화전략 사업단' 1개 팀과 핵심연분야(소형사업팀)에서 '포커스러시아사업팀', '언어중립적 온토로지연구사업팀'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단에 선정된 3개 팀은 올해부터 오는 12년 까지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신 한 · 중 문화전략 사업단'은 연 3억 5천만원씩, '포커스러시아사업팀'은 연 1억 1800만원씩, '언어중립적 온토로지연구사업팀'은 연 1억 2천만원씩 매년 총 5억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는 1단계 사업에서 대형사업단 1개팀과 소형사업팀 3개팀이 선정된 것에 비하면 좋은 결과라 할 수 없다. 권석균 대외연구협력처장은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세부 항목 평가가 발표되면 그에 따른 분석과 함께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내부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사업단에 합류해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는 월 50만원, 박사는 월 90만원을 지원받는다. 박사후 과정생은 월 200만원, 계약교수는 월 2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번 BK21 사업단 선정으로 우리 대학은 국고 지원금의 12%를 대응자금으로 확보해야 하며 연구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달 중에 선정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6~8월에 현장 실사를 실시해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08년과 11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미흡한 사업단을 탈락시키는 한편, 상반기 중에 학술진흥재단내에 'BK21사업관리위원회'를 둬 상시적으로 평가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선정 사업팀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김형민 기자

개교 52주년 행사 열려

지난 달 20일(목) 오전 11시 서울배움터 애경홀에서 개교 5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박 철 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비전 2016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구성원의 화합과 일치단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와 개혁의 상징으로 미네르바 잔디 동산을 개장하며, 그 곳이 외대 구성원들에게 변화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우수교원 시상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 17명에게 '업적평가상'이, 우수 강의로 선정된 교원 20명에게는 '강의상'이 수여됐다. 한편 개교기념일이를 전인 18일(화)에는 "개교52주년 기념 2006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 이 열리기도 했다.

김태형 기자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 해피투게더 ♥ ② 생활에 찾아온 선물

"사시사철 물질에 열두 마디 안 쑤시는 데가 없지라."

청정해안으로 유명한 금일도의 해녀들은 쉬는 날 없이 하루종일 바다 밑에서 전복과 다시마를 땁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관절염을 달고 살지만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 늘 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삼성에서 마련해 준 보건진료소가 생기면서 이 곳 주민들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수시로 보건진료소를 찾아 물리치료도 받고 찜질방에서 피로도 풀며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받습니다. 40여 년간 물질을 해 온 강양임씨는 "우짜스까잉, 겁나게 좋구먼"이라며 구수한 남도사투리 끝에 건강한 웃음을 쏟아 냅니다. 구릿빛으로 검게 그을린 강양임씨의 얼굴에 언제까지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행복동지사업,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전국 140여 곳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는 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 큰 희망을 가지게 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희망리포터 윤은혜가 그 아름다운 현장을 찾아갑니다.

함께 가요, 희망으로! SAMSUNG 삼성

노조 파업 발단 및 양 배움터 학생의 반응

분분한 학생여론, 조속한 문제해결에는 한 목소리

3/3	1차 단체협상(단협) 진행 노사 간의 상견례 학교 '학교측 협약안 제시' 통보
3/10	2차 단협 진행 노조측 단체협약안 제시 11.9%의 임금 인상 요구
3/13	조합원 자격 정지 요청 학교 측 교섭위원 중 조합원이 속한 것을 지적하며, 학교측 교섭위원 중 조합원은 자격정지 요청
3/14	단체협약 해지 통보
3/17	3차 단협 진행
3/22	4차 단협 결렬 학교, 노조에 '학교가 사용자라 규정한 48명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교섭을 재개할 수 없다' 며 교섭 거부
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접수
3/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전조정위원회 개최
4/4	노조, 임시총회 개최, 쟁의 조정 결렬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 86.5%로 찬성
4/5	서울 지노위 '쟁의조정 중지' 통보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됨
4/6	총파업 돌입
4/18	4차 단협 재개 양 배움터 총학생회장 등이 참관인으로 참석
4/21	5차 단협 진행 학교측은 '48명의 조합원 시정 조치' 라는 선행 조건이 이행돼야 원활하게 단협을 진행할 수 있음을 재시사
4/25	6차 단협 진행 및 결렬 양측 간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 조합원 가입범위는 법원의 판결에 맡기기로 함, 판결이후 단협 재개하기로

노조 총파업 발단과 진행 과정

올해 2월 28일(화)자로 04년에 맺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단협)(노조와 학교가 맺는 협약,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및 노사 간의 관계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다시 단협을 맺기 위한 단체협상을 지난 3월 3일(금)부터 가졌다. 학교측은 2차 단체교섭 이후 "학교 측 교섭위원 조합원 한 명이 포함됐다"며 "이느 '무기대등의 원칙(노사 간 교섭에 있어 동등한 환경 및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에서 어긋난다"고 밝히고 교섭위원의 조합원 자격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어 3차 단체교섭에서 학교는 현 조합원 중 48명에 대해 사용자측으로 규정하고 이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위치라며, 조합원 자격의 시정을 요구한다. 이 역시 '무기대등의 원칙' 에 어긋난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학교는 48명의 가정에 '노조 활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 노조는 이 같은 학교측의 행동을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결국 3차 단체교섭은 결렬이 되고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3월 27일(월)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조는 파업 시작 이틀 전인 지난달 4일(화) 노조는 임시 총회를 열어 '조정이 중지가 될 경우 쟁의 행위(파업)를 할 것인가?' 에 대한 여부를 표결로 부쳤고, 참가자 중 86.5%의 찬성으로 안이 통과된다. 같은 날 서울지노위에서는 쟁의조정 중지(노사 간의 쟁의 조정을 할 수 없음) 처분을 내렸고, 다음 날 노조에 정식 통보된다. 결국 노조는 지난 4월 6일(목)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총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서, 양 배움터 학생들 사이에서 파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우선, 파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랐다. 어떤 학우들은 박지혜(국제학부 05)양처럼 "학생들의 권리만큼 직원의 근무조건도 존중해야 한다"며 파업에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또 다른 학우들은 전소진(법 · 법 05)양처럼 "학생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노조 파업을 반대한다"며 파업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대부분의 양배움터 학생들은 파업의 장기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생각은 다양했다. 전경원(서양 · 이탈리아어 03)양은 "단체협상을 장기화로 된 것은 양측의 협의가 결렬됐기 때문인데, 학교 측은 이를 노조에만 원인이 있다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학교 측의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장인혜(동양 · 태국어 03)양은 "학생들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루빨리 노조에서 파업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노사 중 어느 한 쪽의 문제를 지적하는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 최원진(서유럽 · 스페인어 01)군은 "노조의 파업에는 공감하지만, 피해를 입는 쪽은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젠 노사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서 타협을 할 때가 왔다"며 노사 양측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배움터 학우들은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양 배움터 총학생회의 대처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박명상(법 · 법 05)군은 "학우들의 학습권을 지키고자 하는 총학생회의 의지를 높이 사고 싶다"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강현(사회 · 행정 05)군은 "총학생회가 노조의 대자보를 찢고 노조원들과 몸싸움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파업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질책도 있었다. 또한 안상욱(사회 · 언론정보 05)군은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눈에 띄지 않고 개선되는 점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총학생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용인배움터의 경우 김태영(경상 · 국제경영 04)군은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총학생회의 활동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아직까지 총학생회의 활동 중 눈에 띄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임현근(서유럽 · 영어 00)군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방관적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며 총학생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총학생회가 나서야 한다' 는 목소리를 냈다. 이 밖에도, 박수희(아시아아프리카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04)양은 "얼마 전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노조와 몸싸움을 했다' 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는 학교 안팎으로 나쁜 소문을 돌게 해서, 결국 학교 이미지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며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의 행동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학교의 반응에 대해서 변중현(상경 · 경영 05)군은 "학교는 대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은 정준(동양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06)군처럼 "총장님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태형 기자
comorebi@hufs.ac.kr

- 파업관련 Q&A 이것이 궁금하다

노조파업은 언제쯤 끝나나?

노조는 총파업을 단체협약(단협) 체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단협은 2년에 한번 씩 열려 노사 간에 체결하는 약속이며, 올해가 단협을 체결하는 해다. 지난 3월 14일(화) 학교측의 단협 해지 통보로 인해 6개월 후에는 단협이 무효화되기에 그 전에는 단협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 노조측 설명이다. 하지만 노사간의 입장 차이 속에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총파업은 단협이 체결되거나 단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종결 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은 임금인상을 위해 한다?

실제로 직원노동조합(노조)측은 2차 단체협상 자리에서 11.9%의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현재는 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상태다. 노조는 "높은 등록금 인상률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수인건비에 배정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관철해 나갈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직원수가 교수보다 많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과 교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달라진다. 직원은 정규직 287명을 포함해 비정규직, 용역직,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합산하면 553명이다. 교수는 전임교수이상인 433명을 포함해 외국인 교수와, 시간강사를 합산하면 1050명이다. 정규직대비 교수의 비율은 66.3%이며 모든 직원대비 모든 교수들의 비율은 52.3%라는 결과가 나온다.

직원 임금이 교수 임금보다 많다던데?

이 부분도 각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실질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직원 임금이 교수 임금보다 많지 않다. 학교는 직원의 초봉이 서울 소재 사립대학 22개중 최고 수준인 반면 교수들의 임금 수준의 중위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에서 밝힌 자료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 22개 중 8위에 해당하며 교수들의 임금은 10위다. 노조는 "초봉은 타대보다 높은 편이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은 타대보다 적어 갈수록 순위가 낮아지다"고 전했다.

파업기간에는 교비가 지원되지 않아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데?

학생들의 행사를 진행할 때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는 교비는 가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예산을 책정해서 경리과에서 신청 하면 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결산 또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는 파업이 끝난 후 진행된다.

손보율 기자
open05@hufs.ac.kr

노조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파업이 남긴 상처들..

장기화된 파업으로 학생들 불편 호소

총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내 곳곳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각 부서들의 업무가 축소돼 원활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불편은 도서관 이용이다. 양배움터 모두 학생들이 신청한 자료가 구입되지 않고 있으며 책 정리도 이뤄지지 않아 책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양배움터 학생회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 대출과 반납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책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업무를 보고는 있지만 책 정리는 인력 부족으로 잘 안 이뤄지고 있다. 용인배움터 도서관의 자료열람실은 교수들이 돌아가며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배움터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연체료는 파업이 끝난 뒤 정산할 예정이며 용인배움터는 현재도 연체료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파업 기간 중에는 연체를 하더라도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료 구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학생증 재발급신청자의 학생증 발급 역시 미뤄지고 있다. 대신 양배움터 학생서비스센터는 임시 학생증만 발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의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배움터 인쇄실의 업무 중단으로 수업 자료 및 시험 답안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으며 시청각 교육원의 업무 축소로 수업시간 기자재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여러가지 상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름방학이 다가 오는 시점에서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직원 한명만이 업무를 보고 있어 학생들의 상담까지는 힘들다는 것이 대외협력과의 설명이다.

군 휴학신청 및 복수전공 신청 등의 업무도 마비되어 학생들의 커지고 있다. 서울배움터 학사지원과는 휴학 및 복수전공 등 전산 업무를 요하는 작업은 신청서를 받아 놓기만 하는 실정이다. 현재는 상담업무만 진행하고 있다. 용인배움터 교무과 또한 같은 상황이며 "파업이 끝나면 원상태로 조속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 내 · 외선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관리과는 "워낙 선이 많기도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교 홈페이지의 업데이트가 돼지 않는 것은 다른 부서들의 업무 축소로 인해 내용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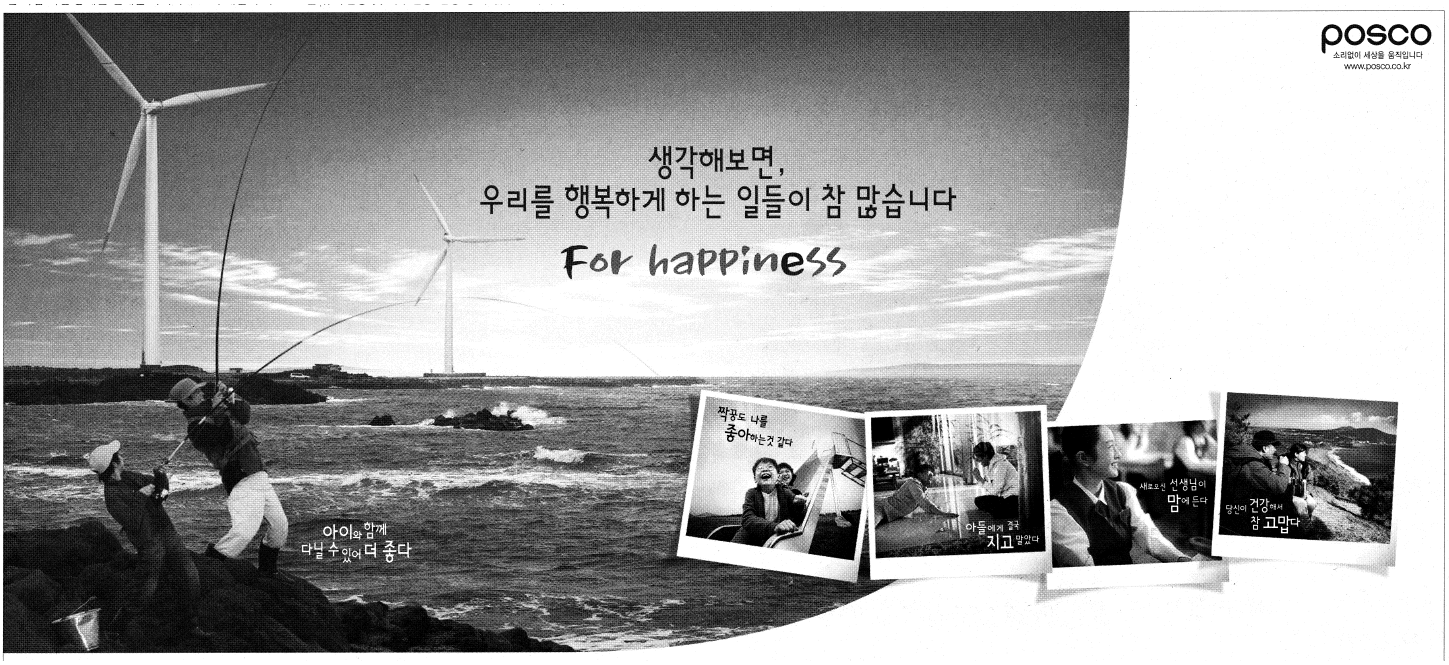
용인배움터 학생지원처는 현재 강의실 대여와 대천수련원 이용 신청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용인배움터 본관은 청소가 되지 않아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화장실 또한 청소가 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용인배움터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및 자치기구별로 청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다.

학교와 노조간 입장차에 따른 예상치 못한 파업의 장기화는 학생들에게 불편만을 안겨주고 있다.

채송아 기자
indieo@hufs.ac.kr

▲총학생회의 학습권수호 3차 시위

▲다함께와 민노당학생위원회의 총학생회 규탄시위



단체 협약안 분석

갈 길은 먼데 끊이지 않는 논란

옆의 표는 지난 2차와 5차에서 각자 제시한 직원노동조합(노조)과 학교의 단체협상(단협)안이다. 각 항목마다 각자의 입장이 담긴 협상안은 현재 노사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에 학교와 노조가 제시한 단협안을 각각 분석해 보고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참고로 아직 단협안에 대해 서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①【조합원의 범위】단체협약 10조에는 단체협상 결렬의 이유가 됐던 조합원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단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측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대법원 판례 및 행정 해석을 근거로 현 조합원 중 48명이 사용자에 해당하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가입과 관련해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학교측 안에서도 학교가 기준으로 제시한 48명의 범위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노동법 제2조의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판단의 주체는 노조라고 밝혔다. "사용자측에 조합원이 선임된 경우 조합원 자격 임시 정지 조치를 통해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해 왔으며 단체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학교측에서 조합원 자격 시정조치를 단협 논의 진행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노조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지난 6차 단체협상 자리에서 법원에 '조합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을 하기로 결정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학교는 판결까지는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결과가 나올 동안은 교섭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②【인사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단체협약 26조 학교안을 보면 현행인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축소시켜 의결 조건을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소병국 총무처장은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중 4명이 노조위원인 상황에서 의사 정족수를 위원의 2/3로 규정한 것은 노조가 원하지 않는 인사 또는 징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직원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단체협약 95조를 보면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을 제외하고 있는데 소 처장은 "인사권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며 단체교섭은 임금, 복지, 노동조건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철 노조지부장은 현재의 규정에 대해 "직원인사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승진, 전보 등 인사 사항은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부당한 인사 배정에 대한 제동장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의 배경에 대해 "98년에 촉출된 비리재단이 인사권을 무기로 비리와 전횡을 저질렀기에 그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학교와 노조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19년 동안의 노사 관계에서 이 권한을 행사한 적은 단 한번이며 이 역시 전임 총장의 '자기사람 챙기기 식' 의 인사를 시도했을 때였다"고 밝혔다.

③【비정규직 정규직화】단체협약 25조에서 학교안은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공개채용의 절차를 걸치되 3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 처장은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학교 경쟁력을 크게 약화 시키는 것이다. 인사 규정에도 어긋나기에 공개 채용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높은 경쟁률을 통과한 능력있는 인원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노조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라며 "맡아오던 업무를 맡는 것이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느냐"고 반문했다.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화는 04년도 체결된 단협의 합의사항으로 비정규 직원인 43명을 매년 5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보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1/3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 왔다.

또한 협상안에서 각자 입장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④【단체협약 제42조】42조는 학교로부터 징계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학교안에는 현행인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판결에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 된다면 복직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이에 노조는 "최종판결까지는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그 기간 동안 알아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

⑤【단체협약 제100조】학교측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학교의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중 발언한 사항에 대해 일방으로부터 비밀보장의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로 해야 한다' 고 문구를 수정했다. 이에 노조는 "일방의 요구로 인해 정보의 비공개가 가능하면 언제든지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⑥【단체협약 제111조】111조는 쟁의 중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안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징계, 부서이동 등의 제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는 규정을 '징계, 부서이동 등 제반 인사 조치를 자제한다' 고 수정했다. 이 안에 대해 노조는 "자제라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며 구분이 불분명하기에 실제로 징계를 진행할 여지를 남긴다"고 비판했다. 이에 학교측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노조는 성역이나 마찬가지"라며 "학교에서 손 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학교는 사용자측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던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는 과장급 3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소집을 오는 9일(화)로 잡고 있다. 하지만 04년도 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상 징계위원회를 열수는 없다고 노조는 밝혔다.

⑦【단체협약 제124,127조】124조, 127조는 총장후보자 선출과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학교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소 처장은 "대학 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결정될 사안이며 총장선출은 교협의 권한이기에 교협의 수정요구에 따라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06년 단체협약(안) 비교표

학교측(안)	현행	노조측(안)
제10조【조합원의 범위 및 방해 금지】 ① 직원의 조하가입은 개인의 자유의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과장급 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 2. 기획 · 총무 · 인사 · 후생 · 노무 담당자 3. 경리 · 예산 · 원가 · 전산 담당자 4. 총장 · 부총장의 비서 및 차량 운전자 5. 기타 노사협의로 정한자 ② 대학은 직원의 조합 가입을 방해하지 않으며, 탈퇴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10조【조합원의 범위 및 방해 금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직원의 조합 가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	**제10조【조합원의 범위 및 방해 금지】** 현행 동일
제22조【조합간부 인사】 ---------- ----------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22조【조합간부 인사】** 대학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전임자, 기획부장, 교육부장, 조직부장 및 대의원회 부의장에 대하여 임면, 전보, 징계 및 해고를 행할 시 반드시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조합간부 인사】** 현행동일
제24조【비정규직 채용 제한】 대학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다.	**제24조【비정규직 채용 제한】** 대학은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의 발생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으며,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26조【비정규직 채용 제한】** ① ---- 협의한다. ② 대학은 상시적인 노동이 필요한 정규직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 노동자 및 행정조교 등 비정규 직원으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제25조【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학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때 공개채용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되 최고 30%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25조【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학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비정규직원 중 합의된 대상인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제27조【비정규직 정규직화】** **① 현행동일** ② 대학원 2004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원 8명(서울캠퍼스 2인, 용인캠퍼스 6인)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용인캠퍼스 비정규직 조합원 5인에 대한 일방적 해고통보는 즉시 철회한다.
제26조【직원인사위원회】 ① 대학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총장이 임명하는 대학측 5인과 조합측 4인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서울캠퍼스 총무처장, 용인캠퍼스 총무처장, 지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총무처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3인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조합측 3인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주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③ 직원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 의결은 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직원인사위원회】** ① 직원인사위원회는 9인으로 권하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서울캠퍼스 총무처장, 용인캠퍼스 총무처장,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총무처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5인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그 중 2인의 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본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주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 의결은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직원인사위원회】** 현행동일
제36조【징계위원회】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를 두며, 총장이 임명하는 대학측 5인과 조합측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6조【징계위원회】** ① 직원의 징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부장이 추천하는 3인이 참여하는 9인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징계위원회】** 현행 동일
제42조 【부당 징계 및 해고】 징계 및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최종판결에 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대학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서 접수 당일로 징계 무효 처분한다. 2. 임금을 비롯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에 따라 즉시 지급한다. 〈..... 삭제〉	**제42조【부당 징계 및 해고】** 징계 및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대학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결정서 혹은 판결서 접수 당일로 징계 무효 처분한다. 2. 임금을 비롯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에 따라 즉시 지급한다. 3. 대학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 【부당 징계 및 해고】** 현행 동일
제46조【정년】 직원의 정년연장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제46조【정년】** 직원의 정년연장은 2004년 말까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한다.	**제48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제93조 【단체교섭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 삭제〉 2.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3.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4. 안전, 보건재해에 관한 사항 〈..... 삭제〉	**제95조【단체교섭 대상】** 대학과 조합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정한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3.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4.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 안전, 보건재해에 관한 사항 6. 기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일체의 사항 및 대학과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101조 【단체교섭 대상】** 현행동일
제98조【공개원칙】 단체교섭의 진행과정은 공개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협의 중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일방으로부터 비밀보장의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100조【공개원칙】** 대학과 조합은 단체교섭 진행과정을 협의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6조 【공개원칙】** 좌동
제109조【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조합의 합법적 노동쟁의나 그 행위에 대하여 방해 및 사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 부서이동 등 제반 인사조치를 자제한다.	**제111조【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조합의 합법적 노동쟁의나 그 행위에 대하여 방해 및 사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징계, 부서 이동 등 제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제117조【쟁의 중 신분보장】** 현행동일
〈..... 삭제〉	**제124조【총장 후보자 선출】** 대학은 차기 총장선출 전까지 학내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를 대학평의원회에서 마련한다.	**제131조【민주적 총장선출제도 마련】** 대학은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대표자가 참여하는 총장후보자선출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2006년 12월까지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삭제〉	**제125조【대학발전추진위원회】** 대학과 조합은 대학의 발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32조【대학발전추진위원회】** 현행 동일
〈..... 삭제〉	**제126조【예.결산자문위원회】** 대학은 총장이 추천하는 직원 1명과 지부장이 추천하는 직원 1명을 예결산자문위원회에 참석시킨다.	**제133조【예.결산자문위원회】** 현행 동일
〈..... 삭제〉	**제127조【대학평의원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34조【대학평의원회】** ① 대학은 대학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한다.

대외부총장 이장희 교수

'개혁 · 변화 · 도약' 각 부/처장에게 듣는다

외대발전에 대한 제언

변해야 산다. 이것이 박철 신임 총장의 구호이다. 한국외대의 대외협력에서도 변할 것이 너무 많다. 외대는 해가지지 않는 대학이다. 5대양 6대주에 외대 졸업생이 활발하게 움직인 덕분으로 한국외대는 대한민국이 60-70년대 수출 입국을 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분명하게 우리 외대는 조국과 국제사회에 과거 공로한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그렇다고 우리는 지난 시절의 아름다운 영광에 더 이상 안주해서는 안 된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국내외 변화의 치열한 대학간의 경쟁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특성화를 해야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외국어 한가지만으로는 안 된다. 외국어의 기초위에 응용학문을 발전시켜 졸업생을 다양하게 진출시켜야 한다. 대외 협력연구부분에서는 대외연구비 확충과 외대발전기금모음, 우수한 신입생유치가 그 골간을 이룬다.

첫째, 대외연구비 확충을 위해서 교수와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구비신청 자에게 많은 편의와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학교는 연구비획득 평가에 도움이 되는 기본시설과 편의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교수는 성실하게 연구비를 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비 제안서를 성실하게 작성, 신청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관학협력 추진 위원회]를 발전시켜, 정부와 상호 협력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정부 각 부서는 대학과 협력해야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외대가 이러한 것을 조속히 발굴하는 [관학협력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정보수집과 관학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 발주시켜 각 정부 부처의 연구비를 많이 수주해야 한다.

셋째, 외대동문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해외 대도시에 [외대하우스]를 오픈하여 외대인의 해외진출 기지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 유력한 우리 외대동문의 회사나 사업체에 [외대하우스]지정현판을 붙이고, 그곳을 그 지역 외대인과 그 지역을 찾는 외대인의 아지트로서 정보공유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외대하우스]는 해외 동문회가 관리해야 한다. [외대하우스]지정은 총장이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중앙부서 외대 출신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미네르바 외대 자문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학교 본부와 모임을 통해 학교발전에 자문을 얻어야 한다. 학교본부는 분기별 이 자문단과 모임을 가져 최신 각 부처의 정책과 최신정보를 접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외대 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관련 학교 부서 지원인력이 보강돼 철저하게 잠재적 모금기여자를 관리해야 한다. 물론 산하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한 모금 유치자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대회, 성황리에 2차모임 열려

29일(토) 마로니에 공원 6000명 집결

지난 29일(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는 6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전국대학생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각 대학 내에서만 이뤄지던 등록금 투쟁을 넘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하나된 힘으로 투쟁하고자 각 지역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모였다. 이번 대회는 '등록금 동결, 교육재정 확보, 교육시장화 정책 철회'를 목표로 예년과 달리 등록금 문제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여러 교육 문제들을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당국을 향한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대현군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지지발언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학벌주의 사회를 비판하며 5·31지방선거에서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여러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교육대책위원회(교대위)는 대회 막바지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동시에 △대학구조조정 중단 및 재검토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교육개방 계획중단 및 재검토 △대학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건설 등을 주장하며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등록금 관련 퍼포먼스를 벌이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부터 교육부까지의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그러나 행진 중 전경차량이 종각 앞의 도로를 가로막아 학생들의 교육부 행진을 막아섰다. 이에 학생들은 급선회 하여 종로와 청계천으로 나눠 교육부가 보이는 광화문 사거리까지 진행해 정리 집회를 가졌다. 정리 집회에서 장송회 교대위 공동 대표는 "교육부에 우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모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 투쟁을 벌이자"고 외쳤다.

또한 교대위 공동대표 강정남씨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며 계속해서 전국대학생대회를 만들어 갈 것이고 교육문제에 관련된 5·31선거 및 한미 FTA를 잘 치루고 막아내자"고 마무리 했다. 우리학교에서도 사회대, 서양어대, 상경대가 참여해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사회대 학생회장 김아리(사회·언론정보 01)양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전국의 대학생들이 공통된 부분에서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에서 희망을 봤다"며 지속적인 투쟁의 중요성을 전했다.

채송아 기자

용인배움터 노천극장 의자 설치 완료

용인배움터에서는 지난 달 12일(수)부터 24일(월)까지 노천극장에 1800여개의 의자 및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이는 노천극장 1단계 '무대 및 무대 지붕 공사'에 이은 2단계 공사로,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관람석 계단부분을 전면 개축했다. 조기에 계획됐던 3단계 관람석 지붕공사에 대한 내용은 학생회와 학교 측의 협의가 없어 예산 측정과 공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노천극장 공사와 관련해 정하욱 관리과장은 "공사 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인해 일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홍은미 기자

'우리은행'과 산학협력 맺어

우리은행, 우리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거액기부

▲ 우리학교 박 철 총장(좌)과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산학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 달 14일(금), 우리 학교 박 철 총장과 우리은행 황영기 은행장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협력을 위한 산학협력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의 결과 우리 학교의 주요 거래 은행이 제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게 됐으며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양 배움터 제일은행 자리에 우리은행이 새로 입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학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상당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받았으며, 앞으로의 여러 교육사업에서도 우리은행의 협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외협력처장 권석균 교수(경영학과)는 "이번 산학협력 체결이 앞으로 우리 학교의 인력개발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등록금 인상반대 운동 '일시정지'

양배움터 총학 "파업 끝나는 대로 움직임 시작할 것"

양배움터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배움터는 학기 초 총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던 등록금마이너스실천단(등마단)의 활동이 노동조합 총파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유보 됐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등록금 투쟁보다 당장의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마단의 활동이 잠정 유보된 상황에서 사범대, 사회대, 서양어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재협상을 위한 천막농성단'이 꾸려져 유인물 선전전, 등록금 재협상을 위한 삼보일배, '등록금 인상반대' 꽃글자 만들기 등 등록금 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노조의 총파업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등록금 투쟁의 분위기도 수그러든 상태다.

현 상황에 대해 총학생회는 "총파업이 종결되는 즉시 등록금 관련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단순히 환불받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배움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학생회장 김준식(아시아아프리카·인도어 99)군은 "파업 이후로 총학생회가 도서 대출 및 반납업무와 본관 강의실 청소를 하고 있어 등록금 운동이 연기 됐다"고 밝혔다. 김 군은 "파업이 끝나는 대로 등록금 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현재 여력이 부족한 '등록금진리 찾기 운동(11.4%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인상률을 낮춰 환불을 요구하는 운동)' 보다는 체전이 끝나는 대로 교학정례회의를 통해 '등록금 권리 찾기 운동(환원에 주력 하는 것)'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 넓은 의미의 등록금 논의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총학생회측은 환원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학생들은 환불보다는 환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현근(서유럽·영어 00)군은 "최대한으로 환원을 받아야 한다"며 또한 "학생회측은 매년 오르는 등록금만큼 학교가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내년 등록금 책정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등록금에 대해 '환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아직 단대장들은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밝혀 총학생회의 의견 및 계획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보여줬다.

또한 등록금에 대해 초학생회가 미비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학생들의 아쉬움이 이어졌다. 최원진(서유럽·스페인 01)군은 "학교는 인상분에 대한 사용처를 정확히 학생들에게 알리고 총학생회는 등록금 투쟁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좀 더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배움터 총학생회는 파업과 관련한 상황들 속에서도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율 · 채송아 기자

박해웅 군, 용인시의원 출마

04년도 용인배움터 경상대 학생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노동당 용인시 학생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해웅(경상·경영정보 99) 군이 오는 31일(수) 열리는 지방선거에 용인시의원 후보(민주노동당 소속)로 출마한다. 전국 최연소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박 군은 "풀리지 않는 등록금 문제를 보며 전체 대학생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대학생들의 정치 세력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돼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계기를 전했다.

박 군은 그가 졸마한 용인시 죽전 1,2동에 대해 지역 복지사업 계정 신설과 주민 참여 예산제 등을 포함한 주민 복지와 보건, 일자리, 여성 분야 등의 지역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청년실업과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 마련 그리고 대학과 지역 공동체 실현 등 대학생을 위한 7대 공약도 내걸었다.

'시의원=잘빠진 세단'이라는 이미지를 깨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라는 박 군은 외대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할 것이며, 이 땅에서 가장 양심적인 우리 학생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신선한 도전으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굳은 각오를 전했다.

임선현 기자

총여학생회, 여학생 대표자 회의 개최

용인배움터 총여학생회(총여)가 주최하는 여학생 대표자 회의(여학대회)가 지난 3일(수) 저녁 6시 정보산업관 207호에서 열렸다.

학생회의 여학생간부들의 참여로 이뤄진 여학대회는 간부소개 및 인사로 시작돼 △총여 정책 보고 △사업 기획 보고 △재정 보고 △건의 사항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총여 정책 보고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반 성폭력 학칙 정정' 에 관한 건이었는데, 학칙 중에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규정안과 구체적 표기에 대한 정정, 성폭력 전문 상담실 개설 등을 제안했다. 또한 생리유고결석계 학칙 개설 시행과 관련해 학생들의 서명을 받은 것과, 시행 추진사항을 알리기도 했다. 그 밖에도 여성학 강의 증설, 각 건물 여학생 휴게실과 관련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번 회의는 여학생 소모임, 맛기행 등 총여 사업 진행 홍보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 대해 총여학생회장 추승미(동유럽·노어 01)양은 "여학대회는 안건을 상정해 토론하기보다는 총여의 사업을 보고하고 이에 많은 여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은 인원의 여학생 대표자들이 참여했지만 의견수렴이 힘들었던 단대 여학생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각 단대 및 과 학생회에서 여성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의 부재로 여학생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점이 이번 여학대회에서 참여율의 저조로 나타나 아쉬움을 남겼다.

홍은미 기자

▲ 지난 달 26일(수) 서울배움터 서양어대, 사회대, 사범대의 주최로 열린 4.19 거복이 마라톤에 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사진은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서 출발하는 사진이다. 이 날 학생들은 서울배움터에서 수유 4.19 국립묘지까지 약 24시간에 걸쳐 완주했다.

학내단신 >>>

서울배움터 농활 다녀와

서울배움터 5개 단대와 외대풍물연합은 지난 4일(목)부터 7일(일)까지 3박 4일간 경상북도 영천으로 농촌학생 연대활동(농활)을 다녀왔다. 약 2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농활은 서양어대, 동양어대, 사회대, 상경대, 사범대 5개의 단대와 외풍연이 참가했으며 서양어대는 신령면으로, 동양어대와 사회대는 고경면으로, 상경대와 사범대는 금호읍으로, 외풍연은 청통면에서 농활을 체험했다.

이번 농활은 '한·미 FTA 반대, 교육재정 확보, 5.31 지방선거 새 정치 실현'을 목표로 진행됐다. 또한 각 마을 별로 반 성폭력 교양과 5.31 지방선거 투표 관련 유권자 교육이 진행되기도 했다.

부재자투표 신청하세요

이 달 31일(수)에 있을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양 배움터에서는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배부한다. 서울배움터에서는 오는 12일(금)부터 16일(화)까지 5일 동안 학생지원처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용인배움터에서는 같은 기간 도서관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부재자 투표일은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이며, 주민등록 소재지가 멀리 있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불가리아 정부, 도서 기증

지난 달 19일(수) 불가리아 정부는 우리 학교에 50여 권의 불가리아 도서를 증정했다. 이번 행사는 불가리아 정부에서 그리스발칸어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원활한 교수 연구를 위해 시행했다고 전해졌다. 증정받은 책들은 불가리아어-한국어 사전과 불가리아어 교재 등 으로 불가리아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다.

이번 도서 기증에 대해 이승은(서유럽·그리스발칸어 04) 양은 "그동안 한국에서 불가리아어 교재를 구하기 힘들어 공부하기 불편했는데, 이번 기회에 교재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그리스발칸어과 김원회 교수는 "앞으로 매년 우리 과 학생 두 명을 소피아 국립대학 등 불가리아의 주요 대학에 무료 어학연수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그 밖의 여러 행사 등을 통해 불가리아 정부와 우리 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안컵 열린다

오늘 8일(월)부터 서울배움터 동양어대의 주최로 아시안컵이 열린다. 동양어대의 9개 과는 각 3개의 조로 나뉘어 오늘부터 3일간 조별 경기를 벌이게 되며, 각 조 1위는 오는 12일(금) 와일드카드 추첨을 통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준결승전을 치룬 후 17일(수)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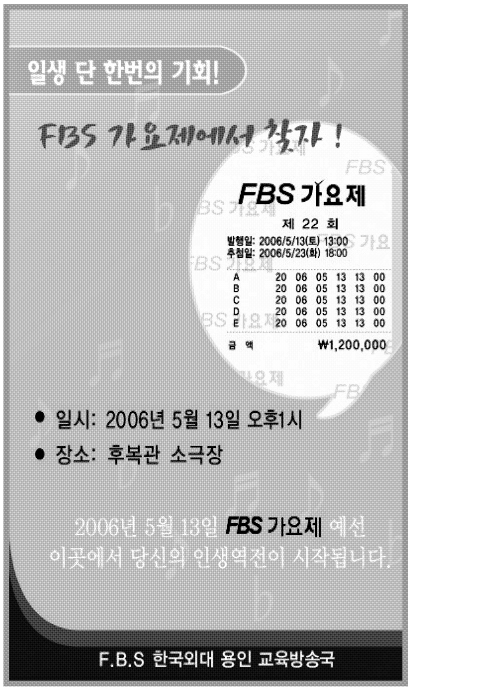
각 조 구성은 A조 – 중국어과, 아랍어과, 인도어과, B조 – 일본어과, 이란어과, 마인어과, C조 – 베트남어과, 터키어과, 태국어과 이며, 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8일		
중국어과	VS	아랍어과
일본어과	VS	이란어과
베트남어과	VS	태국어과
9일		
중국어과	VS	인도어과
일본어과	VS	마인어과
터키어과	VS	태국어과
11일		
아랍어과	VS	인도어과
이란어과	VS	마인어과
베트남어과	VS	터키어과

조사이대학, 아테네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달 25일(화), 27일(목)에 각각 일본 조사이대학 및 조사이국제대학, 그리스 아테네대학과의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조사이대학 및 조사이국제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은 조사이대학측에서 먼저 우리 대학과의 교류를 제안, 이후 25일(화) 양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이국제대학 총장실에서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협정 내용에 따라 연간 3명의 교환학생을 상호 파견하기로 했으며 일본어와 한국어 관련 분야는 조사이국제대학과, 상경 및 이공계 관련 분야는 조사이대학과 교류하게 된다.

한편 그리스 국립 아테네대학은 9만 2천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발칸지역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이번 아테네대학 총장의 한국 방문 시 우리 대학 측에서 초청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아테네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은 최초의 한국 대학이 됐다. 아테네대학과의 상호 교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지만, 학술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의 큰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권석균 대외협력처장은 "두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으로 학생 교류는 물론 협정을 토대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학술교류, 교수 교환 및 파견, 연구 자료의 교류 등 상호접촉을 통해 학문의 기반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